

생산일: 2001. 7. 5

이 자료는 강연(2001.7.5(목) 07:30 예정)
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報 道 資 料

題 目 : 진념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,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 강연

主要内容

- ☐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.5(목) 07:30,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 강연에 참석하여 「하반기 금융정책 추진방향」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음

<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 강연 개요 >

- 일 시 : 2001년 7월 5일(목), 07:30~09:00
- 장 소 : 롯데호텔(소공동) 2층 크리스탈 그랜드 볼룸
- 주 최 : 한국금융연구원
- 강연제목 : 하반기 금융정책 추진방향
- 참석대상 : 금융기관 임직원등 200여명

※ 별첨 : 강연자료

※ 보도자료생산과 :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(500-5341~3)
권혁세 금융정책과장, 김학수 서기관

한국금융연구원 초청
금융기관 경영인 조찬 강연

하반기 금융정책 추진방향

2001.7.5(목)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전 념

- 목 차 -

1. 상반기 경제동향	1
2.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	3
3.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	5
(1)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	6
(2) 시장중심의 기업구조개혁 가속화	8
(3) 상시 금융구조조정 체제 정착	9
(4)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	10
4. 향후 우리 경제의 모습	12

1. 상반기 경제동향

▶ 국내경기는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여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

○ BSI가 100을 상회, CSI도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

· BSI(전경련) : (01.1) 63 → (2월) 83 → (3월) 102 → (4월) 108 → (5월) 115 → (6월) 114 → (7월) 105
· CSI(통계청) : (01.1) 89.7 → (2월) 92.0 → (3월) 94.1 → (4월) 96.3 → (5월) 99.5

○ 도소매판매 · 건설수주 등 일부지표 개선 추세

· 도소매판매(%) : (01.1/4) 2.5 → (4월) 4.0 → (5월) 4.9,
· 건설수주(%) : (01.1/4) △25.3 → (4월) 0.0 → (5월) 16.0

○ 그러나 산업생산증가율이 5월들어 상당폭 둔화되고, 설비투자과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경기회복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

- 수출부진 지속이 산업생산 ·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

· 수출증가율(%) : (01.1/4) 2.1 → (4월) △10.2 → (5월) △7.7 → (6월) △13.4
· 산업생산증가율(%) : (01.1/4) 5.0 → (4월) 5.7 → (5월) 2.3
· 설비투자증가율(%) : (01.1/4) △6.2 → (4월) △5.8 → (5월) △6.6

▶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금융중개 기능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

○ **예금부분보장제** · **금융소득종합과세** · **제2단계 외환자유화** 등의 시행으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이탈과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우려되었으나 금융시장에 큰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

- 지난 연말 감소세를 보였던 공적자금투입은행,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이 안정을 보임

· 공적자금투입은행 수신 : 00.10~12중 △3.8조원 → 01.1~5중 1.8조원
상호신용금고 수신 : △1.9조원 → 2.6조원

- **자본거래, 개인의 무역외지급등도 지난해 수준에 미달**

· 거주자 자본거래(직접투자, 부동산, 예금등) : 00.1~4중 15.5억불 → 01.1~4중 11.8억불
개인의 무역외지급(종여성 송금, 해외여행비용) 30.8억불 → 30.4억불

○ **회사채 시장도 회사채 신속인수 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 안정세 회복**

- 금년들어 회사채 순발행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, BBB⁰급까지 순발행 추세

· 회사채 순발행(조원) : (01.2월) 3.4 → (3월) 1.3 → (4월) 1.3 → (5월) 1.2
BBB⁰급 0.3 0.1 0.0 0.1

○ 다만 기업수익률 하락 등 기업재무구조상의 취약성이 남아있는 상황

·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: (00.1/4) 6.7% → (01.1/4) 3.3%
· 이자보상비율 100%미만 기업비율 : (00.1/4) 30.3% → (01.1/4) 38.2%

2.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

(1) 대외여건

▶ 세계경제는 하반기중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, IT산업의 부진등으로 회복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상존

○ 미국경제는 IT경기의 회복지연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으나, 그간의 금리인하*와 감세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점차 경기둔화세가 진정될 전망

* FRB는 금년들어 6차례 금리인하 실시 (6.5% → 3.75%)

○ 일본경제는 수출*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회복 가능성도 낮아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

* 수출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1/4) △6.5, (4월) △14.8

○ 국제유가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위축과 OPEC의 유가밴드제(22~28불/배럴) 유지를 위한 산유량조절 등으로 하반기중 배럴당 25불 수준(Dubai油 기준)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○ 반도체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에 따른 PC 수요감소와 IT 관련투자 위축 등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T부문이 회복세로 반전되는 시기는 4/4분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

(2) 국내경제 여건

▶ 국내여건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처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향후 시장분위기 개선과 실물부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나 세계경기 회복지연, 노사불안등 불안요인도 잠재

○ 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DR발행 성공에 이어, 현재 진행중인 잔존 부실기업·금융기관
의 구조조정 현안이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

-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,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

- 최근의 소비·투자심리의 개선 움직임이 점차 내수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

○ 그러나 수출·투자부진, 기업실적 악화, 노사불안 등 불안요인도 잠재

- 미·일·EU 경기의 동시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 계속될 경우 설비투자·산업생산 둔화,
기업실적 악화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

- 노사갈등·파업이 계속될 경우 경제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,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
경제에 대한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

⇒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 회복의 시기와 폭은 i)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경도와
ii) 우리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

3.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

(1)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

- ☐ 우리내부의 불확실성 제거와 중장기적 체질강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
 - ☐ 우리경제의 변화대응능력과 자생력 회복에 주력 → 내년이후의 본격적 경기회복에 대비
- ☐ 하반기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
 - ① 건전제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경기대응기조를 유지
 - ②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
 - ③ 수출과 투자활성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책의 효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에 더 가까이 중점
 - ④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노력과 지역간·계층간 불균형 해소 노력을 병행
 - ⑤ 통상협안 등 대외경제협력 증진과 남북경협 내실화에도 주력

(2) 하반기 금융정책 추진 방향

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

Ⅰ 자금시장의 정상화 도모

○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 34조원중 실질적인 차환발행부담은 8조원~13.5조원수준

- P-CBO에 대한 보증한도의 신축적 운용등을 통해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

* 하반기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P-CBO 발행가능규모가 최대 14조원 수준

- 고수익채권시장(Junk Bond)의 육성등을 통해 시장자체 차환발행 여건 조성

- 현대문제 등 남아 있는 시장불안요인의조기 해결, 부실기업 상시구조조정과 기업의 자체 신용향상 노력을 통해 대응

○ 내년도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32조원*수준으로 금년도의 절반 수준

* 32조원에는 일반 회사채, 신속인수 만기도래분 및 P-CBO 내년 만기도래분 포함

2]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적 운용

-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·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과 해외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

- 금융시장상황을 감안한 신축적인 국제발행 등을 통해 장기금리 안정여건 조성 및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

3]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

-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

- 투기적 요인 등에 의해 환율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도 병행

4] 설비투자 및 수출금융 지원 확대

-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(산은 : 6.3조원, 기은 : 2.5조원) 소진추이를 보아가며 최대 30억불 수준의 외자조달 등을 추진

- 플랜트 수출에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확대 및 무역금융 지원대상 확대 등

시장중심의 기업구조개혁 가속화

1 「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」의 조기 정착

- 각 금융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

* 회생가능기업 : 특별약정을 통해 자금지원 등의 조치 이행

* 정리대상기업 : 신속처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 등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수단을 적극활용하고,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정관리·화의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정리절차 폐지 및 화의 취소 등을 유도

2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 제정 추진

- 기업 부실위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고,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, 채권금융기관의 무임승차행위를 방지하는데 중점

3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,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 제고
- 자율감리제도(Peer Review) 등 회계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개선
-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·공표하고 부당금 경감 등 우대조치

* 6.28 지배구조 모범기업(3개) 및 우량기업(5개) 선정·발표

상시 금융구조조정 체계 정착

1 시장중심의 상시적 금융구조조정 확산 유도

-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 민영화를 추진하되, 여권이 조성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조기 민영화도 병행

- 금융지주회사를 선도금융기관으로 지원하고, 우량은행간 자율합병의 분위기 확산

* 우리 · 신한 금융지주회사 및 합병되는 국민/주택은행을 Leading Bank로 해서 금융혁신을 선도

- 은행 부실채권 비율(고정이하 여신)을 연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5% 이하로 감축토록 유도하고, 부실금융회사는 적기시정조치 등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

* 은행부실채권 비율 : (99말) 13.6%(44.7조원) → (00말) 8.9%(31.9조원) → (01.3말) 7.6%(27.7조원)

2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

- 성과지향의 인사 · 보수체계 정착, 위험관리시스템 개선, 금융회사의 수익기반확충 등 선진 금융관행 정착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개혁 추진

- 금감위가 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금융권에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

1 금융규제의 개혁

- 금감위가 금융규제 정비 작업단을 구성하여 그 동안의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⇒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
- 관계전문가 및 금융회사, 금융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가적인 규제대상 점검
- 추가 규제완화시에는 튼튼한 시스템,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수준의 향상도 동시에 추진

2 투자은행의 활성화

- 현재도 증권사가 지문업무, M&A 업무등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으나 know-how 부족등으로 외국 투자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
- ⇒ 직접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증권사등이 단순 중개업무를 벗어나 보다 업무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
- 정부는 필요시 상품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등 영업 활성화 여건 마련

[3] Equity Financing의 활성화

○ 실물경제나 금융시장등 경제의 모든 측면에 있어 증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

-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시 호황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

· 증시를 통해 IT산업에 자금이 공급 → 투자확대 → 경제성장 → 주가상승 → 소비확대의 선순환 흐름이 이어졌음

-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이후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침체의 곪을 확대

* 시가총액(거래소 시장) : 99말 350조원 → 00말 186조원 → 01.6말 220조원

⇒ 투자·소비증대를 통한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증시의 활성화가 중요하며

· 이를 통해 Debt위주의 기업재무구조를 Equity중심으로 전환 가능

○ 이를 위해서 4대분야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

- 주식의 직접금융시장 개선 등을 통한 발행비용 부담도 경감하는 등 발행시장 선진화

- 집단소송제 도입, 회계제도 개선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

- 연기금 자산운용방식의 개선, 기업연금제도 도입, 우리시주 신탁제도(ESOP) 등으로 장기안정적 주식수요기반을 마련 등

4. 향후 우리 경제의 모습

- ☐ 금융정책등 하반기의 주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
 - 우리경제는 하반기중 5%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되어 연간 4~5%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* 미국경제회복 지연시 연간 4%수준으로 둔화 가능성
 - 연초 5%에 달하던 실업률도 연평균 3%대에서 안정
 -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4%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
- ☐ 2002년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
 - 5~6%대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소비자물가는 3%대에서 안정되며, 경상수지도 GDP대비 1%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
- ☐ 아울러 21세기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「비전」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말까지 KDI를 중심으로 「비전 2011 프로젝트」를 추진
 - 특히 민간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